



2019년 11월 10일(제954호) 연중 제32주일(평신도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세상과 하느님 사이에서”

오늘은 사두가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려고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것도 모세의 법을 들고 와서 근거로 들며,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다.”

신학생 시절, 성당을 열심히 다니던 친구가 성당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갑자기 나오지 않아 무슨 일인가 걱정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다가갔는데, 친구가 절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며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이기에 반가움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는 자신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며, 하느님을 왜 믿을 수 없는지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는 마르크스주의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이를 근거로 하느님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와서 신학생으로 지내고 있는 나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라고 처음에 생각하다가, 혹시나 친구가 마지막으로 하느님을 알고자 온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와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에 친구는 너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며, 하지만 여전히 하느님을 믿지 않는 나에게 너의 이야기는 와닿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친구인 네가 이야기한 것이니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하고선 떠나갔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믿음이 없을 때, 하느님의 말씀은 그저 허울 좋은 이야기로밖에 안 들린다고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내가 만든 세상, 그 기준 안에 하느님을 맞추려고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쉽게 하느님이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믿음에 관련해서 ‘허구’, ‘상상’ 등으로 이야기하며 공격해 옵니다. 만약 내가 믿음으로 무장되어있지 않다면, 마치 그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우리는 제2독서의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 우리가 고약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나약해지지 않고, 하느님을 믿으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면 어떨까요? 이번 한 주간은 나의 믿음을 다져가며, 특별히 믿는 모든 이를 위해서 기도해본다면 분명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다져가며 걸어갈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홍승진(베드로) 신부
백두산(21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2마카 7,1-2.9-14
회 답 송 ◎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하리이다.

제 2 독 시 2테살 2,16—3,5
복음 보호송 ◎ 알렐루야.
○ 죽은 이들의 만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비나이다. 아멘. ◎

복 음 루카 20,27-38
영 성 제 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이성례 마리아



성인명: 이성례 마리아 (李聖禮 Mary)

신분: 양반, 부인, 순교자

활동연도: 1801-1840년

1801년 충청도 홍주에서 태어난 이성례(李聖禮) 마리아(Maria)는, 내포 지역의 사도 이준창 루도비코 곤자가의 집안 사람이었다. 어려서부터 충명하고 남성처럼 씩씩한 정신을 지녔던 그녀는 17세 때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과 혼인하여 홍주 다락골의 새터(현, 충남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에서 살면서 1821년에 장남 최양업 토마스 신부를 낳았다.

1839년에 기해박해가 일어난 뒤, 남편 최 프란치스코가 한양을 오가면서 순교자들의 시신을 찾아 묻어 주고 교우들을 돌보자, 이 마리아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자식들을 보살폈다. 그러던 가운데 포졸들이 마침내 수리산 교우촌으로 들이닥쳤다. 이때 그녀는 음식을 준비해서 포졸들을 대접한 다음, 남편 일행의 뒤를 따라 어린 자식들과 함께 한양으로 향하였다. 포도청으로 압송된 이 마리아는 남편이나 다른 자식들과 격리되어, 젓먹이 최 스테파노와 함께 여인들의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문초와 형벌을 받아 팔이 부러지고 살이 너털너털하게 찢어졌으나, 용감하게 신앙을 증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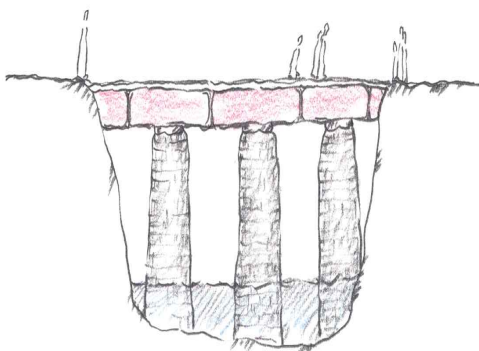
이 마리아는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보다 갖나야기에 대한 모성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느껴야만 하였다. 그러다가 이 마리아는 자신의 본디 마음과는 달리 현세적인 구원을 도모하려는 그릇된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녀는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장남 최양업 토마스가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내 그녀는 다시 체포되어 형조로 압송되었다. 형조에 이르자, 이 마리아는 용감한 신자들의 권면으로 큰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이전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고, 재판관 앞으로 나가 전에 한 말을 용감하게 취소하였다. 또 모성애를 비롯하여 모든 유혹을 용감히 이겨냈으며, 막내 아들을 하느님께 바친 것을 기뻐하였다. 이 무렵 그녀의 둘째 아들인 최의정 야고보가 한 달 이상 감옥을 오가면서 모친과 신자들의 시중을 들었다.

이 마리아는 관례대로 마지막 문초와 형벌 끝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1840년 1월 31일(음력 1839년 12월 27일), 이성례 마리아는 동료 신자 6명과 함께 형장으로 정해진 당고개(현,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로 끌려나갔다. 그런 다음 영광스럽게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녀의 나이는 39세였다. 순교 당시까지 그녀는 안온하고 평화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복 음 묵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용기



무서웠다.
모두가 철교를 건넜지만
난 두려웠다.

많이 창피했다.
용기 없음에
비참했었다.

그땐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저 용기가
없어서라고
생각했다.

괜찮아, 그런 것이
용기가 아니야.

성화이야기

슬픔의 예수님



신드로 보티첼리, 1490-1505년 제작
나무 위 유화, 69×51.4cm / 개인 소장

본 도상은 수난의 고통을 겪으시는 예수님과 수난도구를 들고 예수님의 수난에 슬피하며 고통에 동참하는 천사들을 그린 도상이다.

본 그림에서 예수님은 몸이 묶이신 채,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한 손으로는 가슴의 상처를 열어 보이고 계신데, 가시관이 박힌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다. 인상적인 것은 보통 성화에서 예수님의 휘광은 빛을 상징하듯 그려졌는데, 여기서는 천사들이 장식하고 있다. 자그마하게 그려진 회색빛의 천사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 십자가부터 오른쪽으로,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신 기둥, 예수님의 몸에 박혀있던 못을 빼기 위한 도구, 신 포도주를 적신 스펀지, 예수님의 몸을 내리기 위한 사다리, 예수님을 채찍질한 채찍,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을 들고, 양손으로 혹은 의복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며 예수님의 머리 주변에 떠 있다. 그들의 나무끼는 의복과 천사들이 만드는 모형이 합쳐져 둥근 휘광 장식을 마감한다.

예수님의 붉은 의복의 목 부분 가장자리에는 “이는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ISTO IESU NAZARENU[S] R[EX] [IUDEORUM])”라고 적혀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야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 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오늘 복음말씀 중)

김은혜(벨리시넷)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32주일: 성요셉(1군단) 김승호 신부

◆ 교구장 동정

- 성요셉(의무사) 성당 사목방문
- 때: 11월 10일(주일)

◆ 군중교구 '잇숨 상기대' 단원모집

-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모든 이를 섬기는 삶” - “네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